

# 한국GM 군산공장 정상화 전력투구

### 송 지사,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에 “실사시 정상화 전제로 협의해야”... 오늘 정치권 지원 요청기로

송 지사는 6일부터 7일까지 (2일간) 중앙부처와 국회를 방문해 한국GM 군산공장 정상화를 호소하는 등 절박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송 지사는 6일에는 최근 산업은행이 한국GM 정상화 지원여부 검토를 위해 실사를 진행하고 있어 산업은행을 총괄하고 있는 금융위원회를 방문해 김용범 부위원장을 면담하고 산업은행이 군산공장 정상화를 전제로 협의해 줄 것을 강력 요청했다.

송 지사는 또 지난달 26일 도지사 시장·군수가 결의한 '한국 GM군산공장 정상화'가 답이다' 결의문을 전달하고 참담하고 비통한 전북도민들의 아픔을 호소하고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전국의 500만 전북 출향민과 200만 전북도민들이 간절하게 호소하는 “전북 경제파탄!! 한국GM 군산공장은 반드시 정상 가동되어야 합니다”라는 호소문과 “아빠 회사를 살려주세요”라는 가족들의 눈물겨운 호소와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각층의 정상화 촉구 결의, 도민들의 강한 분노와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대책마련 등 도민들의 현장 목소리를 전달했다.



송 지사는 6일 정부청사를 방문해 최근 산업은행이 한국GM 정상화 지원여부 검토를 위해 실사를 진행하고 있어, 산업은행을 총괄하고 있는 금융위원회를 방문해 김용범 부위원장을 면담하고 산업은행이 군산공장 정상화를 전제로 협의해 줄 것을 강력 요청했다.

당초 이날 예정이었던 백운규 산업부 장관과의 만남은 일정상의 이유로 연기됐다. 송 지사는 둘째날인 7일에는 우원

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조배숙 의원을 잇따라 방문해 한국GM 군산공장 정상화는 물론 전북 지역

경제 위기 상황을 극복에 대한 정치권에서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할 예정이다. /김진성 기자

## 성희롱·성폭력, 안심하고 신고하세요

### 행안부, 특별 신고센터 개설 신고내용 비밀 철저히 보장 조사위 구성 사건 조사도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성폭행 파문이 확산된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성희롱·성폭력 특별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신고된 사건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직장내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직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이같은 내용의 '성희롱·성폭력 근절 특별 대책'을 마련,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특별대책에는 성희롱·성폭력 신고, 상담 및 조사, 조사결과 처리, 2차 피해 방지 등의 전 과정을 체계적인 프로세스에 따라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행안부는 우선 부내 온라인 비공개 '특별 신고센터'를 8일 개설해 직원들이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에 대해 두려움 없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신고내용은 고충상담원 이외에는 열람되지 않게 하는 등 철저히 비밀을 보장해 신고에서 조치에 이르기까지 제반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또 '행안부 성희롱·성폭력 조사

위원회'를 구성·운영해 신고된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는 물론 피해자 상담과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한다.

조사위원회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건 처리를 위해 성희롱·성폭력 분야에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외부 전문가 4명을 위촉하고 위원장도 외부전문가가 맡는다. 부내 여성국장, 여성과장, 여성 직원 대표자 등 4명을 내부위원으로 위촉해 여성 직원들의 고충을 대변할 예정이다.

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라 가해자에 대해서는 우선 인사 조치를 실시한다. 징계 사유 또는 형사 사건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징계의뢰와 고발 조치를 통해서 엄정하고 공정하게 사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피해자에 대해서는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해자와 피해자를 격리하고 필요 시 상담 치료를 하는 등 적절한 보호 조치를 받으면서 사건이 해결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특별대책을 계기로 성희롱·성폭력 피해자가 두려움 없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분위기를 정착시킬 것”이라며 “가해자는 엄정하게 처리해 부내 성희롱·성폭력을 완전히 뿌리 뽑아 직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스시스

## 도, 탄소소재 융복합 주얼리 상품개발 지원

전북도와 (재)전북테크노파크(이하 '전북TP')는 탄소소재산업 육성 일환으로 '탄소복합재 적용 주얼리 상품개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이 사업은 항공기와 자동차, 조선 등 여러 첨단산업의 분야에서 탄소소재로 각광받고 있는 탄소소재를 주얼리 기술에 접목해 새로운 상품을 개발함으로써 전북 국내 주얼리 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와 신시장 진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북 주얼리 관련 전문가 및 관련 업계는 성공 가능성이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디자인 개발·3D프린팅 기술을 통한 시제품제작·국내외 주얼리 전시회 출품 지원 등 신시장 진출을 위한 전주기 지원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함이 가장 적절하다는 의견이다.

해외에서는 탄소복합재와 귀금속 소재를 이용한 주얼리 제품이 출시되어 온라인 시장을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되고 있는 상황이나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디자인 개발 및 가공 기술 부족으로 국내 탄소복합재 주얼리 시장은 극히 미미한 실정이다.

그 동안 기업차원에서 시범적으로 반지, 목걸이 등 탄소소재를 적용한 일부 주얼리 제품을 제작되었으나 탄소소재 가공 노하우 및 경험 부족으로 시장진출 실적은 전무하다.

이번 사업을 통해 반지, 팔찌, 메달, 귀걸이 등 전통 주얼리 제품의 다양화할 수 있고 아울러 벨트, 브로치, 카울더, 악세서리 등 고급 생활용품 분야로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가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 임노옥 탄소산업과장은 “전북의 전통 주얼리 산업도 첨단소재와 융합된 신기술 개발과 지속적인 투자가 수반된다면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위축되어 있는 전북도내 주얼리 산업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 4차 산업혁명 직무역량교육

전북도의회는 6일 의원총회의실에서 이지성 사무처장과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직무역량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전북도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JCCIA) 최훈 본부장이 강사로 나서 '사람을 잇는 융합기술 콘텐츠로 여는 미래 산업'이라는 주제로 강의했다.

최 본부장은 “가상현실(VR)은 컴퓨터 등을 사용한 인공적인 기술로 만들어진 실제와 유사한 환경이나 상황, 기술 등을 의미하고 증강현실(AR)은 현실세계에 가상 물체를 겹쳐 보여주는 기술로 '포켓몬GO' 게임 같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글로벌 IT 선두 기업들은 의료와 교육은 물론 엔터테인먼트, 국방 및 테마 기술 등 모든 분야에서 도입 중이다”고 강조했다. “4차 산업혁명을 이해하고 의정활동 보좌과정에서 전문성을 확보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 현장활동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6일 호성동 배미실마을 진입로 개설 공사현장을 방문했다.

도시건설위원회는 그동안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주민들의 불만이 제기됐던 이 지역을 방문, 진입로 개설공사의 안전관리와 원활한 공사추진을 당부했다.

이병하 도시건설위원장은 “장기간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으로 시민의 불편이 최소화 될 것이며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가 확보될 것”이라며 “주민불편이 예상되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조속한 사업시행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도시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원도심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친환경적 도시발전을 도모해 시민이 보다 살기 좋은 전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채규남 기자

## 재정혁신 강화 예산효율화 박차

### 전북도, 채무비율 완화·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등 추진

전북도는 예산효율화 및 재정 건전성을 위해 지역개발기금 채권매입을 조정으로 채무비율 완화,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신속집행 등을 강력하게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도는 지역개발기금 채권매입을 낮춰 저소득자 부담 완화를 물론, 채무비율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는 자동차 등록이나 각종 계약체결에 따른 채권매출로 해마다 지역개발기금(4,236억원)이 증가하고 있다.

시군 가용자원 여유로 도 지역개발기금 용자수요는 감소함에 따라 자금운용 역마진이 있어 이를 해결하고자 채권매입을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방안

을 추진 중이다. 이 방안이 추진되면 지역개발기금은 적정수준 유지하면서 채무가 감소하고 채권매입 시 주민부담은 완화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게 된다.

이로써 채무잔액은 520억원(7,718억원에서 7,198억원)이 감소하고 도민이 혜택 받는 채권 감면금액은 520억원(1,431억원에서 911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 관계자는 조세개정 입법예고를 완료하였으며 3월 중에 조세개정 도의회 승인을 얻어 올해 12월까지 8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면제하게 된다고 전했다.

/김진성 기자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http://www.jjmaeil.com)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jmaeil.com](http://www.jjmaeil.com)